

# ‘거인’이 물러난 자리에 ‘난쟁이’ 군단 활보

개인감성의 탐구와 일상적 행복 갈망했던 90년대의 베스트셀러

한 시대를 풍미한 베스트셀러는 당대인의 의식을 판독해낼 수 있는 ‘사료’다. 90년대는 역사의 중압에 질식해 있던 개인의 감성과 표현욕이 뿔어져 나온 시대였다. 소수의 ‘거장’이 퇴장하고 무명의 작가들이 활보하는 ‘난쟁이의 시대’였다. 계급모순과 민족모순이라는 거대담론보다는 원자화된 개인의 내면의식으로 침잠했다. 세계화의 대세 속에서 ‘우리것’에 대한 탐구열기는 인문학의 중흥을 이끈 견인차였다.

90년대 최고의 베스트셀러는 김진명의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였다. 이휘소 박사의 의문사를 추적한 이 책은 400만부라는 경이적인 판매고를 기록했다. 문단의 쟁쟁한 대기들을 제치고 무명작가가 대권을 거머쥔 것이다. 북미간의 핵협상 정국과 애국주의적 정서가 절묘하게 맞아떨어진 결과였다. 무명작가와 시의성이란 측면에서 ‘이문열의 시대’였던 80년대와는 양상이 달랐다.

## 내면의식의 탐구에 기운 소설

주제 면에서 90년대 소설은 내면의식의 탐구로 가파르게 기울어갔다. 장대한 스케일로 한 시대의 벽화를 그렸던 80년대와는 대비된다. 이는 여성작가들의 득세와도 무관하지 않다. 조정래·황석영·조세희 등 선군은 작가들에서 섬세한 감수성으로 무장한 양귀자·공지영·신경숙 등으로 주목받는 작가의 성비가 역전됐다.

박완서의 《그대 아직도 꿈꾸고 있는가》와 신달자의 《물 위를 걷는 여자》가 90년대를 열었다면, 양귀자의 《천년의 사랑》, 공지영의 《고등어》가 그 뒤를 이어받았다. 은희경의 《마지막 춤은 나와 함께》, 신경숙의 《기차는 7시에 떠나네》는 새로운 개성과 문체로 90년대의 대미를 장식했다. ‘63년세대’ 작가들의 급부상이 특기할 만하다.

90년대 초 기이한 현상 가운데 하나는 역사소설 붐이었다. 90년 이은성의 《소설 동의보감》으로 물꼬를 튼 역사적인물의 소설화는 황인경의 《소설 목민심서》, 이재운의 《소설 토정비결》로 확산됐다. 허준·다산·이지함의 생애를 복원한 이 책들은 역사적

사실과 문학적 상상력 사이의 허용기준에 대한 고전적 논란을 불러 일으키기도 했다.

90년대 중후반 부권상실과 가족해체 현상은 김정현의 《아버지》에 반영됐다. 암선고를 받은 아버지의 방황과 가족애를 그린 이 소설은 직장과 가정에서 내몰리는 아버지의 초상화를 그림으로써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냈다. 신화와 영웅이 사라진 시대에 소시민들의 보상심리를 자극한 크리스티앙 자크의 《람세스》도 밀리언셀러의 대열에 올랐다.

컴퓨터 통신문학의 개화는 소설의 역사를 다시 쓰게 하기에 충분했다. 이우혁의 《퇴마록》이 등장하면서 소설의 문법에 일대 변혁을 일으켰다. 제도권을 통한 등단여부와는 관계없는 ‘사이버 문단’이 형성되기 시작했고, ‘통신문학’이 하나의 장르로 정착되는 계기가 됐다. 90년대 말에는 판타지 소설이 영상세대의 폭발적 호응을 얻으면서 ‘미디어 믹스’의 가능성을 실험하기도 했다.

## 솔직한 자기고백 사랑받아

시문학에서는 소녀취향의 통속시집과 솔직한 자기고백이 인기를 모았다. 80년대 《홀로서기》와 《접시꽃 당신》으로 정점에 이른 ‘시의 시대’는 90년대 들어 최영미·류시화·이정하가 이어받았다. 최영미의 《서른, 잔치는 끝났다》는 문단에서 작품성에 대한 논란을 일으키며 화제를 모았다. 류시화·이정하는 난해한 현대시에 질린 독자들에게 여린 감수성과 서정적 문체로 사랑받았다.

90년대는 ‘에세이의 시대’다. 여성취향의 서정성이 주류를 이



90년대는 역사의 중앙에  
질식해 있던 개인의 감성과  
표현욕이 뿔어져 나온 시대였다.

90년대와는 달리 90년대는 사회명사의 성공담, 자전적 에세이, 명상의 기록 등이 대세였다. 90년 직장인들 사이에 필독서였던 대우그룹 김우중 회장의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는 95년 이명박의 《신화는 없다》와 함께 우리 사회에서 성공신화가 여전히 위력적임을 입증했다. 하지만 대우그룹의 신화가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이명박의 도덕성이 의심받으면서 성공신화의 허구성이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다.

여성의 사회진출이 활발해지면서 커리어우먼의 활약이 두드러졌다. 특히 독특한 경력을 지닌 여성의 자전적 에세이가 독자들의 사랑을 받았다. 다큐이 인형작가 김영희의 《아이를 잘 만드는 여자》, 전위무용가 홍신자의 《자유를 위한 변명》, 입지전적 삶을 살았던 서진규의 《나는 희망의 증거가 되고 싶다》가 대표적 사례다. 가부장적 사회에서 상대적 박탈감을 시달리는 여성들의 자아실현 욕구가 표출된 것이다.

잔잔한 감동의 이야기를 모은 책 캔필드의 《마음을 열어 주는 101가지 이야기》와 법정 스님의 명상집 《산에는 꽃이 피네》는 IMF 파국의 심리적 공황을 헤쳐가는 지혜를 전해줬다. 그밖에 홍세화의 《췌낭은 죄우를 나누고 한강은 남북을 가른다》와 신영복의 《더불어 숲》은 사회비판의식과 감동적 메시지를 담아 에세이의 품격을 높였다.

### 우리것에 대한 관심 높아

90년대는 제한된 범위내에서나마 인문학이 성세를 누린 시대로 기록될 것이다. 80년대가 마르크스-엥겔스의 원전과 복한 해금도서 출간으로 사회과학이 출판의 주류를 이뤘다면, 90년대는 '우리것'에 대한 재발견과 역사대중화가 인문학의 큰 줄기를 이뤘다.

93년부터 선보이기 시작한 유흥준의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는 인문도서의 밀리언셀러 시대를 열었다. 국토에 대한 사랑과 문화재에 대한 탁월한 심미안으로 인문교양서 부흥기를 연 책으로 기록됐다. 이 책의 출간을 계기로 답사여행

붐이 사회현상으로 자리잡기도 했다. 우리것에 대한 관심은 민속학의 영역까지 폭을 넓혔다. 주장현의 《우리 문화의 수수께끼》는 '금줄 없이 태어난 세대'를 위한 우리 문화론으로 주목받았다.

역사교양서가 인문분야를 이끈 주력상품으로 떠오른 것도 이목을 끈다. 왕조사에 대한 관심과 생활사에 대한 탐구가 독자들의 지적 욕구에 호소했다. 박영규의 《한권으로 읽는 조선왕조실록》은 방대한 왕조사를 요령있게 요약함으로써 소수의 전문가에게만 유통되던 역사지식의 대중화에 기여했다. 이 책을 계기로 '한권으로 읽는' 역사서들이 수십종 쏟아져 나와 역사의 인스턴트화에 대한 우려를 낳기도 했다.

전문역사연구자들의 글을 모은 《조선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는 역사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정치사·경제사·시대사에서 생활사·풍속사로 옮겨갔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줬다. 이는 서양의 아날학파와 일상사 이론을 국내 연구에 적용시킨 모범적인 사례로 손꼽힌다. 한편 시오노 나나미의 《로마인 이야기》는 개성적 문체와 독특한 해석으로 고급 역사평설의 영역을 개척해 스테디셀러로 자리잡았다.

### 컴퓨터 대중화 이끈 입문서

대학입학 교육의 변화는 베스트셀러 목록을 바꿀 정도로 우리 사회에서는 위력적이었다. 대학입시에서 수능능력시험과 논술이 도입되면서 위기철의 《논리 시리즈》가 밀리언셀러를 기록했다. 대학입학 수기도 출판시장에서 인기품목이었다. 막노동일을 하면서 서울대 인문계열 수석을 차지한 장승수의 대학합격기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가 베스트셀러에 오른 것은 입시공화국의 단면을 보여준다.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퍼스널 컴퓨터의 눈부신 발전과 폭발적인 보급을 빼놓을 수 없다. '컴맹'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하고 최근에는 'N세대'라는 말이 나돌 정도로 컴퓨터의 영향력은 절대적이었다. 95년도에 출간된 《컴퓨터 길라잡이》는 컴퓨터 대중화의 길을 열었고, 이후 컴퓨터 인구의 급증과 인터넷의 활성화로 이에 대한 입문서가 베스트셀러 상위권을 지켰다.

실용·처세 분야에서는 스티븐 코비의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 초대형 베스트셀러가 됐다. 단순한 처세비법을 전수하기보다 인간의 품성을 개조할 것을 권유하면서 독자를 사로잡았다. 한편, 《꼬리에 꼬리를 무는 영어》《영어의 바다에 빠져라》 등이 독특한 영어학습법으로 영어에 주눅 든 국내 독자의 사랑을 받으며 실용서 시장을 주도했다.

— 박천홍 기자